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7.02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유럽의회, FP10 핵심 쟁점 해소 촉구(6.26)

- 유럽의회와 연구 혁신 분야 관계자들, FP10 부분 입장 채택 환영
-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의 자유 및 유럽경쟁력기금(ECF)과의 연계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냄
- 연구계는 FP10과 ECF의 역할이 이전보다 명확히 구분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, 실제 운영 방식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

○ 호주, FP10 영향력 확보 위해 호라이즌 유럽 조기 가입(6.25)

- 호주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은 정부와 대학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성사
- 이번 연계는 1년만 적용되므로, FP10에는 새로운 연계 협정이 필요
- 호주 정부는 2027년 1월 연구비 공모 개시와 동시에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며, 이에 호주 연구중심대학 협의체는 향후 브뤼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EU 연구비 제도와 연구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

○ EIC, 사상 첫 1억 유로 규모 국방 스타트업 공모 개시(6.30)

- EIC(유럽혁신위원회)가 이달부터 군민 겸용 및 국방 기술 지원을 공식 허용할 예정
- 이를 기념하여 EIC는 1억 유로 규모의 국방 혁신 전용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출범
- 새롭게 마련된 1억 유로 규모의 전용 기금은 국방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며, 기업당 1,000만~3,000만 유로를 지원

○ (기타) ▲EU 회원국, FP10 우선순위 결정권 확대 추진(6.25) ▲향후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을 둘러싼 다섯 가지 핵심 질문(6.30) ▲연구 평가 개혁, 진전은 있었지만 기관별 편차 여전(6.25)